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646. 832. 7397

212. 736. 8500 (EXT 355, 3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eoulosb@gmail.com

주임신부 : Brian Jordan, OFM

지도신부 : 이웅희 루카 (작은형제회 : 프란치스코회) luke0829ofm@gmail.com

전교수녀 : 안혜진 마리루시 (통정포교베네딕도회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이지연 안나레지나 917. 282. 1662

제1독서 | 잠언 8,22-31

화답송 | 시편 8,4-5.6-7.8-9(© 2ㄱㄴ)



(후렴) 주님,저희주 님, 온 땅에당신 이름, 이 열마나크시옵니 까!

○ 우러러 당신 손가락으로 빚으신 하늘하며, 굳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바라보나이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시나이 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시나이까? ◎

○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나이다. 당신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아래 두셨나이다. ◎

신앙고백: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밀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2독서 | 로마 5,1-5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받으소서. ◎ 알렐루야.

복음 | 요한 16,12-15

영성체송 |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셨다. 그 영이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신다.

성가 | 입당 77(2, 3절) 예물준비 512(511)
영성체 174(175) 파견 25(2절)

미사 봉헌

연미사 지향

- 장석은 요셉
- 유혁일 헨리의 영혼
- 최진영 스테파노
- 김두해 목사님의 평안한 안식을 위해

생미사 지향

- 박소영 세실리아 - 건강회복
- 김이 엘리자베스 - 영명축일
- 장동환 헨리코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 장동엽 에드문드 - 졸업 축하
- 이지연 안나레지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 이성수 미카엘과 가족을 위해
- 김제환, 김은지 - 생일 축하
- 김상범, 한수현의 영육간의 강건을 위해
- 정루하 프란치스코
- 성주아 율리안나 교사 - 축일 축하
- 조남록 미카엘, 조성자 테레사의 영육 건강을 위해
- 2025년 성령대회에 함께 한 모든 분들을 위해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찬봉사	복사
6월 15일	백이백	국민준	이경자	김승연	김영숙	이예진 김수현
6월 22일	김유화	강호영	민덕미	고은경	유정옥	한서희 김수현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면담 후 결정 *신청: Sr.마리루시
유아 세례	면담 후 결정 *신청: Sr.마리루시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 Sr.마리루시
예비신자 교리 견진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 Sr.마리루시 방문교리(환자/어르신) *신청: Sr.마리루시

주일 미사 후 친교 모임**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 분, 새로 전입오신 분, 처음 뵙는 분들에게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새 교우분 맞이

새로 오신 교우분들을 위해 본당에서 <새신자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사 후 다미아노 홀 친교모임에서 만남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 ‘나눔의 바자회’ 기부 감사인사

이번 나눔의 바자회에 기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기꺼이 나눔을 해주신 재속프란치스코회 뉴욕 한국 순교자형제회 회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 전합니다.

6월 15일 Father's Day 행사

Father's Day를 맞아 형제님들께 꽃과 축복기도문 증정이 있습니다. 형제님들은 미사 전에 성당 입구에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6월 22일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대축일’을 맞아 양형영성체가 있습니다.**주일학교 1학기 종강 & 방학식**

시간/장소: 6월 15일 11:00AM 프란시스룸

* 6월 15일부터 주일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갑니다. 학생들 모두 방학 잘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가을에 만날 수 있도록 기도 중에 기억 부탁드립니다.

예비신자 교리교사 양성 교육

일시: 6월 16일 - 9월 6일(12주간)

장소: 코리안 오피스

대상: 이지훈(아녜스), 구봉진(가를로보르메오) 총 2명

지도: Fr. 이윤희 루카OFM

* 신자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깜짝 베품시장 “Free market” for Korean office

일시: 6월 15일 10:30 - 11:00AM

장소: 산 다미아노 홀

주제: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요한 5,2)

목적: Korean Office 후원금 마련

(나눔의 바자회 종료 후 남은 물품 판매)

품목: 의류 및 신발(1-10세)/ 스키바지 (3-9세)

악세서리/ 맨하탄성프란치스코한인천주교회 모자

후원: 최병은 루치아

주일학교 대표교사 & 보조교사 모집

하느님께 받은 재능과 사랑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주님 사랑을 전하며 가톨릭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도록 도와주실 분들을 찾습니다. 교사활동에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 지원 부탁드립니다.

모집 인원: 유치부 & 초등부, 중고등부

문의: 646. 287. 2582 교감 정승연 플로라

예수성가정회 월례회

일시: 6월 29일 11:00AM 산 다미아노 홀

문의: 858.345.0307(교육분과장 최병은 루치아)

제29차 2025 미동북부 성령대회

일시: 7월19일(토) 오전9시-오후7시

7월20일(일) 오전9시-오후5시

장소: 펠리시안 대학교 (Felician University)

262 S. Main St. Lodi, NJ 07644

참가비: \$40

신청/문의: 917. 929. 4242(성령기도회회장 민재인 데레사)

제42차 미 동북부지구 올뜨레야 대회

일시: 7월 4일 9:30AM-4:00PM

장소: 뉴저지 메이플우드성당

참가신청문의: 929 444 1411(간사 민완준 필립보)

미 동북부 레지오 마리에 봉쇄교육

일시: 9월 26일(금) 4:00PM

- 9월 28일(일) 5:00PM

장소: 뉴튼 수도원(Newton, New Jersey)

신청마감: 8월 31일(주일)까지

지도신부: 김정수(디다코) 신부

참가비: \$300(2박 3일 숙식비 포함)

* Check 발행 시 “Legion of Mary”로 발행

준비물: 성서, 레지오 교본 및 수첩, 묵주, 세면도구, 실내화, 간편한 옷차림, 정장(또는 한복) 한 벌.

신청/문의: 347. 633. 3767(꾸리아 단장 윤숙자 루시아)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투병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남석베드로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 NY 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32St. NY, NY 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 NY 10001
www.kunjip.nyc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212.697.1802
색소 미백 레이저 카카오톡: clearlascity1
주름 보톡스, 필러 5th Ave & 42nd St
뉴욕 도서관 앞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한국
남도 7박8일 관광

지도자, 경영인 정신이해와
문화, 역사, 건강 체험.
혼자서 체험할 수 없는 남도 여행
고향사랑 국제 연대
847)269-9422
131 E 69th St. New York 10021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Clara Clara Inc.

맨하탄 사무실이나 기타 공간이
필요하신 분 연락바랍니다.

(917) 596-1460
306 W. 37th Street
New York, NY 10018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 WEST WINE & LIQUOR

린다킴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0AM-10PM / SUN: 12PM-9PM


Kwangsuk "Joseph" Kim

공인 부동산 중개사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408-220-4569
Furumoto Realty of New York City, Inc.
www.furumoto.com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영성심리 칼럼

고개를 들다

민범식 안토니오 신부 | 대신학교장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8단계 발달 모델'의 세 번째(3~6세)는 '주도성 대 죄의식' 단계입니다. 이 시기의 아동은 큰아이로 행동하려고 하며 분명한 목적 아래 자신의 행동을 시작하고 마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이의 목표와 활동은 때로 부모나 다른 가족의 목표/활동과 부딪히기 마련이죠. 이 갈등을 적절하게 다루면 아이는 하고 싶은 대로 활동하는 '주도성'을 기르게 되지만, 아이의 활동을 지나치게 처벌하거나 억제하면 아이는 '죄책감'을 발달시킵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거듭되면 아이의 내면에는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여기는 '자기혐오'의 태도가 형성됩니다. 행동이 '나쁜' 것과 나라는 사람이 '나쁜' 것을 아직 구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혐오로 이어지는 죄의식은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억제된 자기혐오가 자신을 향하면 만성적인 우울감으로 발전하기 쉽고, 다른 사람을 향하면 공격적인 성향이나 완벽주의 또는 강박적인 성향으로 발전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발달 단계에서 형성된 죄의식은 하느님과 맺는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늘 감시하고 벌하는 엄한 분이신가요, 아니면 나를 좋아하고 믿어주고 지지해 주는 분이신가요?

원죄의 결과로 물려받은 근원적인 자기중심성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더하는 길보다 죽음을 향하는 길로 기울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는 도구들, 곧 여러 계명이나 고해성사 같은 안전장치가 필요하죠. 그런데 작은 일에도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느끼는 분이라면 이런 안전장치를 하느님께서 나를 속박하시는 도구로 느끼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비와 사랑의 하느님을 끊임없이 알려 주셨지만, 여전히 하느님을 엄하신 분으로 알아듣는 모습입니다.

루카복음 15장에 '되찾은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많은 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두 아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자신을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이해하는 듯합니다. 본인 스스로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29절) 살았다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런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명을 거스르지 않을까 싶어 늘 노심초사하지 않았을까요? 이에 비해 작은아들은, 비록 행실은 방탕했을지라도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탕진한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겠지요.

건강한 죄의식은 하느님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지만, 그릇된 죄의식은 우리를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서울주보 제2463호, 2023년 8월 27일 자 참조) 죄의식을 많이 느끼는 나라면, 하느님을 더 깊이 만나보세요.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지, 내가 어떠한가를 바라실지 여쭙보세요. 죄책감으로 두려워하고 움츠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고개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이사 41,13)

교리 상식

* 전례 안에 표현된 삼위일체 신앙

- 세례: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에게 세례를 줍니다."
- 십자 성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미사 시작 때: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 영광송: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영광송을 바칠 때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흠송하는 표시로 머리를 깊이 숙입니다.)
- 사도신경: 우리가 믿는 바를 요약해 놓은 사도신경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곧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미사 전례 안에서 '신앙 고백' 때 사도신경 대신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바칠 수 있는데, 이 신경은 성자와 성령에 대한 믿음의 내용을 풍요롭게 전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천주교 예비신자 교리서』, CBCK(2018).